

대한 예수교 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 회를 쉬

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 이

세 상을 이 처럼 사랑 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 @ hanmail.net

교육목사 김용상 : 010-7400-5810

사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협동장로 :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64 종교부지 1호

지난 주 말씀 요약 (2 / 12)

제 목 : 능력의 종도 잘못하면 징계 받는다.
성경말씀 : 신명기 32 : 48 - 52

기독교 역사에서 신, 구약을 막론하고,
“모세”처럼 능력 있게 쓰임 받은 종이 없다.
물론 여러 선지자와 베드로나 바울 사도도 크게 쓰임 받았지만
능력 면에서는 모세를 능가할 만한 종이 없다.

400 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데 하늘에서 열 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 왕과 그
세력들을 굴복시키는 능력에 쓰임 받았으며, 그 출렁이며
넘실대는 홍해 바다를 지팡이를 들어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상함 없이 건져내고, 이집트
군병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역사,
하늘에서 만나를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장정만 60만 노약자와
여인네까지 최소한 200만 ~ 500만의 대부대를 먹이고 입혀
40 여년의 광야 생활끝에, 이제는 요단강 건너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눈앞까지 인도했다.

모세가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준비한지 어언 80
여년, 이제 그 땅을 바로 눈앞에 두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너는 그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 한다” 하신다.
1~2년이나 5~6년도 아니고 80년 넘게 키워온 모세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는커녕 오히려 막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만능으로 역사하셨으면서도
왜 이렇게 모세의 꿈을 막으셨는가?
범죄 했기 때문이다.

첫째,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 (민 20:12상)

신 광야 가데스 프리바에서 먹을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아 !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여
물을 내어 마시도록 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원망에 분을 내어,
“패역한 너희여 !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찌고, 찌쳐서 물을 냈다.

외부적으로 보면, 모세를 통한 능력이 또 한 번 나타났다.
그 넓고 단단하던 반석이 틈을 내어 생수가 강물처럼 넘쳤다.
백성들은, 아~ 하~ 모세의 능력을 봐라 ! 감탄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믿음 없다고 징계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믿음이 없다고 하셨는가?

모세가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능력을 믿고
이제까지 제일 능력 있는 종으로 쓰임 받고 역사를 이뤘지만,
이 사건에 대하여서는 믿음 없이 행하였다는 것이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낸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은 것으로, 그렇기에 믿지 아니 했다고 징계 하신
것이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크게 쓰임 받았다 해도, 어떤 사건에서 그 사건과 그때에 맞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면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은 것이 된다.

둘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민 20:12하)

모세가 “패역한 너희여 들어라”하며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하며 반석을 명해서
물을 냈더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뜻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다.

오늘날은 어떠한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쓰임 받고 있다.

받은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모세의 위 사건에서처럼 잘못하는 일은 없는지 ?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행사하면서도
어떤 일에서는 그 일에 합당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사람 자기 뜻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

행하는 결과는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게 하면 그것은 잘못이며 죄가 되는 것이다.

모세가 신 광야 가데스 프리바 물에서 이 사건 때와
본문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그 죄를 물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는 보되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징계 시점은
약 20년 차이가 있다. 모세가 잘못을 하고 20 년간 잘 지냈지만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잘못의 책임을 물으신 것이다.

크게 쓰임 받은 능력의 종도 잘못하면 징계하신다.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8 시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1. 35. (새 찬송가 1, 35)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육 :

-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자기의 것이요
 -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임이요
 -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 너희를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 너희를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 누가복음 6장에서 - 아 멘 -

찬 송 : 87 (새 찬송가 87)

기 도 : 문정용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누가복음 6 : 20 ~ 23 신약 98쪽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기쁨의 지경을 넓혀라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506 (새 찬송가 453)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김정환 장로)

☆ 송 영 : 3 (새 찬송가 5)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2 월 안내]

남, 김정환 조상희 공옥열
여, 정명숙 노인숙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2시)

사 회 : 박종복 집사 (다음 조상희 집사)

기 도 : 임동순 집사 (다음 최순덕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고린도후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 요 저 녁 예 배 (저녁 7시)

사 회 : 이춘희 집사 (다음 이성숙 집사)

기 도 : 정기화 집사 (다음 강복희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 벽 기 도 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사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 등 부 예 배 (주 일 오 전 9시, 본 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고린도후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 등 부 예 배 (주 일 오 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김용상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고린도후서)

청 년 부 예 배 (주 일 오 전 10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 요 밤 기 도 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2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1. 유 초 등 부 겨 울 성경 학교

2월 24일(금) 25일(토) 2일간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를 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구원과 성장에 역사가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주시고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금 요 기 도 회

이번 금요 밤 기도회는(24일)

나오시는 대로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에 참여합니다.

함께 하셔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3. 남 녀 각 전 도 회 월 레 모 임

오전 예배 후 12시 10분,

각실에서 예전대로 모입니다.

함께 하셔서 친교와 화합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신암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정연심 님, 남양현대 103-808 ☎ 470-4263

☺ 하주연 님, 현대 106-201 ☎ 655-4758

☺ 유동훈 김윤영 님, 한국아텔리움 201-303
☎ 010-8682-8639, 010-9622-2939

지난 주 말씀 요약 (2 / 19)

제 목 : 기쁨의 지경을 넓혀라
성경말씀 : 누가복음 6 : 20 -23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일에만 기뻐한다.
그러나 좋은 일에만 기뻐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무신론자나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하는 일이다.
천국에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는 일의 지경 곧 기쁨의 범위와 한계를 넓혀서 보통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까지도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

본문 말씀에 나타난 기쁨의 때를 보면,
첫째, 미움을 받을 때 기뻐하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한다는 사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면, 그 때는 슬퍼하거나 갈등을 할 때가 아니요 꺾충꺾충 뛰면서 기뻐하라는 것이다.

둘째, 사람들로부터 멀리함을 당할 때 기뻐하라.
오늘날 주위 사람들로부터 멀리함을 당 하고 소외당하고 왕따를 당하게 되면 그로 인해 괴로운 나머지 죽음까지 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별로 잘못된 것도 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소외를 당한다면 그 때 기뻐하라는 말씀이다.

셋째, 욕을 먹고 모함을 받을 때 기뻐하라.
사람이 잘해서 욕을 먹을 때도 있고 모함을 당할 때도 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전도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잘하는 일이거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살아간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자기들과 다르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욕을 하기도 하고 저주와 모함을 한다. 그때 억울해 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기뻐 뛰놀라는 말씀이다.

넷째, 악하다 하며 버림을 받을 때 기뻐하라.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며 진리 말씀대로 나가면 사람들은 자기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여 악하다고 정죄한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잡신 미신을 배척하고 참 된 것을 추구 하고 나가면 편협하고 배타적이지요 악하다고 비방을 한다.
도덕적으로 성품이나 어떤 언행이 악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들과 다른 생활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악하다고 하며 친교를 거부하고 버리는 것이다. 그 때 갈등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서는 알아주시겠지” 하고 기뻐 뛰놀라는 말씀이다.

다섯째, 채찍을 맞을 때 기뻐하라 (행5:40-42).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과 우리의 죄 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심을 증거하며,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유대교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한다고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사도들 일행을 잡아 채찍질하며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하고 놓아주었다.
이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을 맞고 매를 맞고 능욕 당할 것을 아파하고 괴로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때문에 매 맞게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여섯째, 병이 있을 때 기뻐하라 (고후12 : 8-10).

사람이 건강하다가 병이 들기도 하고, 이유도 모르게 아픔을 당하기도 한다. 사도 바울도 눈병이 있었다. 눈가에는 눈물이 질질 흐르고 눈썹이 너털너털 붙어있고, 그걸 떼어내려면 눈이 아프기도 하고, 눈은 침침하니 잘 안보이고, 이러하니,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다. 눈병이 나을 수 있도록 주님께 세 번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주님께서는 눈병을 낫게 해 주신 것이 아니고,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시며 눈병을 그대로 감당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는 사도 바울은 도리어 자기에게 눈병이 있는 것을 크게 기뻐하였다.

일곱째, 괴로움 당할 때 기뻐하라 (골로새 1:24)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인들을 위하다가 영, 육간에 당하는 괴로움이 있는데, 그것을 싫어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하였다.

가족을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 이웃을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 회사를 위하다가 당하는 괴로움, 하나님의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하다가 당하는 괴로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다 당하는 괴로움이 있다면 우리도 이런 괴로움을 기뻐하자.

여덟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하라 (야고보서 1:2)

시험이란, 한 마디로 말하면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나쁜 일을 만났을 때 잘 참고 기뻐하라는 말씀이다.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나쁜 일을 당했지만, 그 일에도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알고 기뻐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범위와 한계, 기쁨의 지경을 넓혀서, 성삼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고, 우리의 삶이 현세에서나 천국에서나 더욱 행복한 삶이 되어야 하겠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회를 쉬
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세 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교육목사 김용상 : 010-7400-5810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협동장로 :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진하 이다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64 종교부지 1호

주 일 낮 예 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8 시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6. 9. (새 찬송가 2, 8)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육 :

-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막과
- 모든 나라의 그 덮힌 휘장을 제하시며
-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사야 25 장에서 - 아 멘 -

찬 송 : 404 (새 찬송가 304)

기 도 : 목 사

성경봉독 : 목 사 : 이사야 25 : 6 -12 구약 993쪽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168 (새 찬송가 180)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문정용 장로)

☆ 송 영 : 8 (새 찬송가 6)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3 월 안내]

남, 문정용 조상희 공옥열

여, 오정순 노인숙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2시) 바울헌신예배

사 회 : 한명선 집사 (다음 조상희 집사)

기 도 : 백원덕 집사 (다음 최순덕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고린도후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 요 저 녁 예 배 (저녁 7시)

사 회 : 이성숙 집사 (다음 이성희 집사)

기 도 : 강복희 집사 (다음 이춘자 집사)

말씀증거 : 김용상 목사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 벽 기 도 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사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 등 부 예 배 (주일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고린도후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 등 부 예 배 (주일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김용상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고린도후서)

청 년 부 예 배 (주일오전 10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 요 밤 기 도 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2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 교 회 소 식 *****

1. 유 초 등 부 겨울 성경학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많은 성도들의 도우심 가운데
잘 마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믿음의 성장이 있도록
앞으로도 기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 금 요 기 도 회

이번 금요 밤 기도회는(3월 2일)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교사 주관으로
진행합니다. 함께 하셔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3. 특 별 새 벽 기 도 모 임

자녀들의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하여

2월 27일 ~ 3월 4일까지 특별새벽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모두를 위하는 선함을 이룰 것입니다.

4. 목 회 수 양 회

27일(월)부터 3월 1일(목)까지

본 교단 목회 수양회가 있어서 다녀옵니다.

어디서나 기도하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정연심 님, 남양현대 103-808 ☎ 470-4263

☺ 하주연 님, 현대 106-201 ☎ 655-4758

☺ 유동훈 김윤영 님, 한국아텔리움 201-303

☎ 010-8682-8639, 010-9622-2939

지난 주 말씀 요약 (2 / 26)

제 목 :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
성경말씀 : 이사야 25 : 6 - 12

본문 말씀은 영적이며, 예언적이며, 시적인 은유의 말씀이다. 즉 당시 사람들 육신에 관계된, 그 현실에 맞는,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고, 영혼에 관계된 장래 이루어질 숨은 뜻의 말씀이다.

6절에, 하나님께서 연회(宴會)를 베푸신다 하셨다. 그 잔치의 이름은 “천국 잔치” “생명의 잔치” “구원의 잔치” 등 여러 가지 좋은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잔치를 통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복락을 누리게 된 때문이다.

어떤 잔치든지 잔치에는 음식과 음료가 있기 마련이다. 음식과 음료의 질과 맛과 풍성에 따라 좋은 잔치가 되기도 하고, 소문난 잔치인데 먹을 것이 없다는 푸념을 듣기도 한다.

첫째, 천국 잔치의 음식과 음료. (6절)

- ① 음식 : 골수로 가득 찬 기름진 것, 예수님의 우리 죄 값 대신 희생하신 몸을 뜻한다.
- ② 음료 :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 예수님의 우리 죄 값 대신 흘리신 보혈을 뜻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요6:53-56)

위에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라는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몸을 희생하신 것이 바로, 내 죄 값 때문임을 “믿는” 것이며, “내 피를 마시고”라는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이 역시 내 죄 값 때문임을 “믿는” 것이다.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 값을 담당하신 것은 창세전 오래 전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됐다는 것이다. 이리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잔치는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은혜” 즉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최상의 음식과 최상의 음료가 풍성하게 준비 돼서 누구든지 그 잔치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게 하신 것이다.

둘째, 모든 민족의 면박과 휘장이 제거하여 졌다. (7절)

예수님의 구속(救贖)의 은혜를 통한 새 명을 얻는 역사는 이미 확실하지만, 그렇다면하여도 구약시대에는 그 사실이 면박에

가려지고 휘장에 가려진 것처럼 회미했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율법과 여러 가지 형태의 제사 의식에 가려져서, 예수님만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면박처럼 휘장처럼 가려졌던 구약의 제사 의식과 또 의문에 속한 율법에서 해방되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사망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하셨다. (8절)

그 누구도 그 무엇이든지 생명이 있는 이상 사망을 피할 수가 없다. 사망은 죄 값으로 왔고, 죄는 율법을 어겨서 죄가 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준행하시고 의를 이루셨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죄인들의 죄 값을 다 담당하셨고, 죽은 삼 일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망을 이겨내게 하셨으며,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복락을 누리게 하셨다. 이리므로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베푸신 목적을 이루셨다.

이제 이런 지극하신 사랑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살을 먹고(믿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다.(믿었다) 그러나 근본의 믿음위에 매일 매일의 삶에서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며 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천국잔치에는 참여했으나 아직도 음료와 음식을 먹지 못한 사람은, 내 죄 값 대신 희생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믿어야 한다. 잔치에 참여하여 음식과 음료를 안 먹으면 되겠는가?

②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믿음의 결과에 대한 아름다운 소망, 말씀을 순종한데 대한 상을 바라보는 소망, 천국에 영광이 찬란한 축복을 소망하는 등, 여러 소망을 가지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

③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와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회사나 직장이나 사업을 사랑하고,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며,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 제일은 사랑이다. 한 평생 살고 남는 것은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사랑한 것뿐이며, 또한 이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된다.

2012 - 10

2012 년 3 월 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내게로오라내가너희를쉬
게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이처럼사랑하사독생
자를주셨
으니이는
저를믿는
자마다멸
망치않고
영생을얻
게하려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교육목사 김용상 : 010-7400-5810

사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협동장로 :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64 종교부지 1호

주 일 낮 예 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8 시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1. 85. (새 찬송가 1, 85.)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 열 두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 마가복음 4 장에서 - 아 멘 -

찬 송 : 186 (새 찬송가 254)

기 도 : 문정용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마가복음 4 : 10 - 20 신약 58 쪽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비유의 바른 해석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189 (새 찬송가 257)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김정환 장로)

☆ 송 영 : 3 (새 찬송가 5)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3 월 안내]

남, 문정용 조상희 공옥열
여, 오정순 노인숙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2시)

사 회 : 조상희 집사 (다음 장 흥 집사)

기 도 : 최순덕 집사 (다음 윤정희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고린도후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 요 저 녁 예 배 (저녁 7시)

사 회 : 이성희 집사 (다음 박영수 집사)

기 도 : 이춘자 집사 (다음 박숙희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 벽 기 도 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사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고린도후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김용상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고린도후서)

청 년 부 예 배 (주 일 오전 10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 요 밤 기 도 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2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냈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 교 회 소 식 *****

1. 월례 제직 모임

오늘 오후 2시 예배 후 3시 10분에

이 곳 본당에서 3월 월례제직모임이 있습니다.

제직들은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금요기도회

이번 금요 밤 기도회는(3월 9일)

1교구 전 구역 주관으로 진행합니다.

함께 하셔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암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유동훈 김윤영 님, 풍암동 한국 아델리움

☺ 이수학 조인지 님, 풍암동 동부 센트레빌

☺ 김은영 님, 풍암동 한국 아델리움

지난 주 말씀 요약 (3 / 4)

제 목 : 비유 말씀의 바른 해석
성경말씀 : 마가복음 4 : 10 - 20

오늘 마가복음 4 : 10-12절 말씀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비롯하여 비유말씀을 하는 여러 이단들이 주 무기로 삼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왜곡하는 말씀이다.

월~월~ 타오르는 지옥 불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이단괴수 이만희는, 본문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이 말씀 너희를, 이만희 자신을 비롯해서 신천지사람들이라 우겨대고,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기 외인을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는 정통교회 신자들이라 왜곡 선전을 하고, 따라서 이만희 일파 자신들만 비유 말씀을 해석하고 풀이할 수 있기에, 자신들에게 속해야만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미혹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단설은 신천지 이만희만 주절거리는 것이 아니고, 통일교 문선명, 천부교 전도관 박태선 일파, 구인회, 영생교 조희성, 장막성전 유재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구원과 권신찬과 박옥수 계통, 안식교 계통과 정명석 박명호, 새빛등대 김풍일 등, 모든 이단들이 아전인수 격으로 서로가 자기들만이 비유말씀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마귀설인 것이다.

그렇다면 본문 11절 “너희에게” 너희는 누구를 뜻하는가?
본문 마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에서 “큰 무리는” 원어로 보면 많은 수에 최상급으로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사람을 뜻한다.

예수님께서 여기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갈 길로 돌아갔다. 남은 것은 10절에 나오는 12 제자와 함께한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이들이 비유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 여쭙본 것이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들을 가리켜서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었으나”라고 하신 것으로, 신천지 이만희나 유재열이나 김풍일이나 오늘날의 어떤 이단의 괴수나 집단을 뜻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서 “외인”도 당시에 12제자와 함께 한 사람들 외에 예수님을 떠나간 수많은 사람을 지칭한 것이며, 오늘날 신천지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단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정통 기독교인들을 뜻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위 사건에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한 사람들과

12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 했는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 예수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우리 죄 값 대신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주시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구원의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장정만 5천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뒀을 때,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먹고살 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에서였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하시며, 예수님의 살은 참 된 양식이며, 예수님의 피는 참 된 음료라 하시고 먹으라 하셨다. 이는 곧 예수님이 우리 죄 값 대신 몸이 상하실 것을 믿고, 우리 죄 값 대신 피를 흘리고 죽으실 것을 믿으라는 뜻이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겠다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이나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나? 하며 거의 떠나가고 12제자와 함께한 몇몇 사람들만 남았다.

예수님께서 남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물으시니,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섬겼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나 위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미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에 함께한 것이며, 비유의 말씀과 관계없이 이미 죄 사함 받고 천국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

즉 말씀의 비유 풀이를 듣고서 죄 사함이나 구원 받은 것이 아니며, 유다를 제외하고는 이미 12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즉 비유 말씀을 하나도 모를 그 때에, 창세전에 택함을 받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사도로 세워진 것이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백부장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주님으로 믿었을 때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시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을 말씀하셨지, 무슨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죄 사함을 받거나 천국백성이 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본문 15~20절 말씀에서, 자신께서 친히 비유말씀의 해석을 해주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비유 말씀의 뜻을 알게 하셨다. 이러하기에 신천지나 기타 이단들이 말하는 것을 멸망 받을 이단설이라 하는 것이다.

2012 - 11

2012 년 3 월 1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회를 쉬
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교육목사 김용상 : 010-7400-5810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협동장로 :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64 종교부지 1호

주 일 낮 예 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8 시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6. 50. (새 찬송가 2, 35.)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육 :

○ 여호와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나니

○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테까지

● 햇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니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여호수아 1 장에서 - 아 멘 -

찬 송 : 382 (새 찬송가 347)

기 도 : 목 사

성경봉독 : 목 사 : 여호수아 1 : 1 ~ 6 구약 320쪽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밟는 곳을 너희에게 주었다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313 (새 찬송가 524)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김정환 장로)

☆ 송 영 : 2 (새 찬송가 3)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3 월 안내]

남, 문정용 조상희 공옥열

여, 오정순 노인숙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2시)

사 회 : 장 홍 집사 (다음 공옥열 집사)

기 도 : 윤정희 집사 (다음 채혜경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고린도후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 요 저 녁 예 배 (저녁 7시)

사 회 : 박영수 집사 (다음 이미숙 집사)

기 도 : 박숙희 집사 (다음 김소영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인도 : 목사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고린도후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김용상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고린도후서)

청 년 부 예 배 (주 일 오전 10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 요 밤 기 도 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2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 교 회 소 식 *****

1. 신앙성장 프로그램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어야만

자기의 참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연연하지 말고

오늘 현재와 앞으로의 시간을 잘 가꾸는 것만이

행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 됩니다.

2. 금요기도회

이번 금요 밤 기도회는(16일)

2교구 전 구역 주관으로 진행합니다.

함께 하셔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암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유동훈 김윤영 님, 풍암동 한국 아텔리움

☺ 이수학 조인지 님, 풍암동 동부 센트레빌

☺ 김은영 님, 풍암동 한국 아텔리움

지난 주 말씀 요약 (3 / 11)

제 목 : 밭은 곳을 너희에게 주리라
성경말씀 : 여호수아 1 : 1 ~ 6

능력의 중 모세가 하늘나라로 갔다.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여호수아가 자신 스스로 돌아볼 때에 자기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하고 미약하다고 여겨져 두려움과 근심 중에 있었다.

모세가 이집트 왕의 세력을 굴복시키려고 열 가지 재앙을 내릴 때, 여호수아는 그 중 한 가지도 행하지를 못했다. 뒤에는 이집트의 추격병, 앞에는 파랑게 넘실대는 홍해바다, 진퇴양난의 절곡에서 지팡이를 들어 홍해바다를 가르는데, 낮엔 구름기둥 밤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마시게 하여 백성들을 흠족케 한 모세, 십계명을 비롯하여 창세로부터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계시 받아 오경(五經)을 기록한 모세, 그런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 자신은 너무도 미약하여 지도자로 나설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친히 사명을 주셨으니, **첫째,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가나안복지로 가라.** (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부녀자 노약자까지 하면 최소한 2백만 명이 넘는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달라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병든 사람, 출산을 앞 둔 사람, 삶에 회의를 느끼고 주저앉은 사람,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여호수아를 배척하는 사람,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미약하거나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생기지 않도록 하여 다 같이 가나안복지로 들어가라는 말씀이다.

가나안 복지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 광야생활 40여년을 유리방황한 끝에 이제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축복의 땅이었다.

이는 곧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 1) 육신의 삶이 안정을 누릴 축복의 세계를 뜻함이고,
- 2) 마음과 영의 평화와 기쁨을 누릴 영적 은혜의 세계이며,
- 3) 이 세상을 떠나면 장차 누릴 천국복락의 세계를 뜻한다.

이러한 세계에, 여호수아나 믿음이 좋은 지도자들만 들어가지 말고 모든 백성과 더불어 다 함께 들어가라는 말씀이다.

오늘날 우리의 가족이나 주위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런 은혜의 세계를 알지도 못하며 어느 정도는 알면서도 실제로는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세계를 전해 주고 이제 우리가 다 함께 그 은혜와 축복의 세계 천국복락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며 더불어 나가야 한다.

둘째, 밭바닥으로 밭은 곳을 주겠다. (3절)

이 가나안 복지를 주시겠다는 말씀은 최초로 아브라함과 약속에서였다.(창13:14-18) 그 후에도 이삭과 야곱을 비롯하여 모세에 이르기까지 약 500년 동안 수시로 말씀을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약속하셨던 땅을 그냥 얻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동에 옮겨 밭바닥으로 밭고 실천해 나갈 때, 밭바닥으로 밭은 그 곳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다.

사람의 편에서 보면 안타깝고 무정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400여년 종살이에 광야생활 40여년, 그 험난한 고생 끝에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당도 했으니 그 가나안 땅은 그냥 편하게 얻게 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서 밭바닥으로 밭아 나가는 그곳을 주시고 또한 그곳만 주시겠다는 것이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앉아 있는 그곳만 주시고, 열 밭자국 밭아 나가면 열 밭자국 밭은 그곳, 천 밭자국을 밭아 나가면 천 밭자국 밭아 나간 그곳, 만 밭자국을 밭아 나가면 만 밭자국을 밭은 만큼 그곳을 주시겠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고 말씀하셨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기만 하고, 귀로 듣기만 하며, 마음으로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입으로 말을 잘하는데, 정작 실제 생활이나 행동으로는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느낌을 받고, 입으로 말을 했으면 이제는 현실의 생활에서 실제로 행동에 옮겨, 말씀대로 실천을 하라는 것이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만큼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다.

셋째, 당할 자가 없이 함께 해 주신다. (5절)

위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하신대로, 모든 백성과 함께 더불어 일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밭바닥으로 밭아 나가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할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다는 말씀이며,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실천해 나가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말씀이다.

2012 - 12

2012 년 3 월 18 일

대한 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회를 쉬

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세 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교육목사 김용상 : 010-7400-5810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협동장로 :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64 종교부지 1호

주 일 낮 예 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8 시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1. 21. (새 찬송가 1, 21.)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육 :

- 팔레스타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져가
- 아스돗 자기들의 신전의 신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이
-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 팔레스타인 사람이 다곤을 일으켜 그 자리에 세웠더니
- 그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다곤의 신전에서 본즉
- 하나님의 궤 앞에 다곤이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 있었다.

- 아 멘 - 사무엘상 5 장에서

찬 송 : 40 (새 찬송가 79)

기 도 : 김정환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사무엘상 5 : 1 - 12 구약 415쪽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233 (새 찬송가 242)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홍의남 장로)

☆ 송 영 : 3 (새 찬송가 5)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3 월 안내]

남, 문정용 조상희 공옥열
여, 오정순 노인숙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2시)

사 회 : 공옥열 집사 (다음 김철진 집사)

기 도 : 채혜경 집사 (다음 김공순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고린도후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 요 저 녁 예 배 (저녁 7시)

사 회 : 이미숙 집사 (다음 최순희 집사)

기 도 : 김소영 집사 (다음 박영희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 벽 기 도 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 사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등부 예 배 (주일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고린도후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등부 예 배 (주일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김용상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고린도후서)

청년부 예 배 (주일오전 10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요 밤 기 도 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2 년도 신앙 표어 말씀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냈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 교 회 소 식 *****

1. 신앙성장 프로그램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어야만

자기의 참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연연하지 말고

오늘 현재와 앞으로의 시간을 잘 가꾸는 것만이

행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 됩니다.

2. 금요기도회

이번 금요 밤 기도회는(23일)

3교구 전 구역 주관으로 진행합니다.

함께 하셔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3. 남녀 각전도회 월례회

오전예배 후 12시 10분에 남녀 각전도회가

예전대로 각실에서 모입니다.

신앙의 유익과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김은영 님, 풍암동 한국 아텔리움

☺ 유미애 님, 풍암동 한국 아파트

☺ 배재영 김응경 님, 풍암동 부영 아파트

지난 주 말씀 요약 (3 / 18)

제 목 :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성경말씀 : 사무엘상 5 : 1 - 12

지금부터 3,100년 전, 사무엘 선지자는 어리고, “엘리”가 이스라엘의 최고 제사장이며 지도자로 있을 때에 팔레스타인 사람이 대군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여,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다 앞세웠다.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 두 돌 판과 만나 향아리와 아론의 싹 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고, 이는 곧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하심을 뜻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장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너무도 수치스럽게 이스라엘 민족의 참패로 끝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빼앗겼으며,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일어나 다가가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곤”이라는 잡신을 만들어 섬겼는데 곡식의 풍요와 번성을 가져다주는 신이라 하여 크게 신전을 세워 섬겼고 이스라엘에서 빼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신 다곤 상 앞에 승전 제물로 바치고 축배를 들었다.

이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인가 !?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잡신을 섬기는 팔레스타인에게 진 것이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잡신 다곤신에게 패한 것이 되어, 주위 여러 종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이 비웃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모독을 당하는 비참한 일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시키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곤 잡신과 팔레스타인 사람을 한순간에 멸할 수 있으시지만, 이스라엘백성의 죄악을 징벌하고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신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 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홀히 여기고 멸시했으며,
 - ② 음란하여 성전에서 심부름하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으며,
 - ③ 이방 종족들이 섬기는 잡신 미신도 섬기며 타락해 나갔다.
 - ④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방탕하면서도 회개할 줄을 몰랐다.
- 이런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자신의 명예와 영광이 훼손되고 모독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을 징벌하시면서

그 죄를 회개시키고 바로 세우고자 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실추되고 모독당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는 하나님자신 스스로께서 그 영광을 취하시고 보존하신 것이었다.

- ①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거꾸러지게 하셨다.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언약궤까지 빼앗아 승전 제물로 다곤 신상 앞에 바쳤는데 그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거꾸러지게 하신 것이다.
 - ② 다곤 신이 목과 손이 끊어져 언약궤 앞에 엎어지게 하셨다.
 - ③ 아스돗 사람이 독종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케 하셨다.
 - ④ 가드 사람이 독종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케 하셨다.
 - ⑤ 에그론 사람이 독종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케 하셨다.
- 팔레스타인이 언약궤로 인한 재앙임을 깨닫고 언약궤를 이곳 저곳으로 옮겨봤지만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리시므로, 이스라엘에게 대승을 거두고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승전 제물로 바친 의기양양함은 다 없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무서워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본 곳으로 돌려보내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위 사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징벌하시고 바로 세우심에 있어, 자신의 명예나 영광의 훼손과 관계없이 어떤 일이든지 진행시키시고, 정작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는 하나님자신 스스로께서 회복시키고 보존하신다. 오늘날도 그러하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여 죄를 짓고 나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친히 징벌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와 고통과 모독과 짓밟힘을 당하게 하면서 바로 세우시고, 정작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는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키고 보존해 나가시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우리 자신의 죄를 살피서 회개해야 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함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뜻은 없는지, 세상 물질과 타락된 문화에 마음을 빼앗겨 믿음의 일을 멀리하며 방탕한 일은 없는지, 우리 죄를 살피 회개해야 한다.

둘째, 성경말씀 중심의 순수한 신앙으로 바로서야 한다.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잠시 결길로 썰 수도 있다. 그러나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길이 선한 길인지 다시 바로서야 한다. 에녹,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이사야, 다니엘 등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 말씀 중심의 순수한 신앙에 서야 한다.

셋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한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고, 우리는 마땅히 그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한다. 몸과 마음과 입술과 우리의 생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며,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축복이 있는 것이다.

2012 - 13

2012 년 3 월 25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
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교육목사 김용상 : 010-7400-5810

사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협동장로 :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64 종교부지 1호

주 일 낮 예 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8 시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6. 57. (새 찬송가 2, 43.)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 사람들이 젖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 그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와 궤와 밧 금 쥐와
 -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 암소가 벤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 불레셋 방백들은 벤세메스 경계까지 따라 가니라.
 - 벤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셨더라.

- 아 멘 - 사무엘상 6 장에서

찬 송 : 84 (새 찬송가 134)

기 도 : 목 사

성경봉독 : 목 사 : 사무엘상 6 : 10 - 16 구약 416쪽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벤세메스로 가는 압소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281 (새 찬송가 229)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홍의남 장로)

☆ 송 영 : 8 (새 찬송가 6)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4 월 안내]

남, 김정환 조상희 공옥열
여, 노인숙 정명숙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2시) 에스더헌신예배

사 회 : 박인순 집사 (다음 김철진 집사)

기 도 : 최명희 집사 (다음 김공순 집사)

말씀증거 : 문정용 장로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 요 저 녁 예 배 (저녁 7시)

사 회 : 최순희 집사 (다음 이성희 집사)

기 도 : 광영희 집사 (다음 이춘자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고린도후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 벽 기 도 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사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고린도후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김용상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고린도후서)

청 년 부 예 배 (주 일 오전 10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 요 밤 기 도 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2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냈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 교 회 소 식 *****

1. 학습 세례 문답 예비공부

본 교회에 출석하여 6개월 이상 된 분은 학습문답 공부,
1년 이상 된 분은 세례문답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2살 미만 아기들의 유아세례를 받고자 하는 부모님은
유아세례 문답공부를 하게 됩니다.

4월 2일(월) 3일(화) 오전 10시 30분, 밤 7시 30분.

2. 부활주일 위한 준비

4월 2일에서 7일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 값을 지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고난 주간이며,
4월 8일 주일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 부활주일입니다.
3월 26일(월)부터 4월 8일(주)까지
특별새벽기도회로 모이며 경건한 생활로 주님을 기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한 믿음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3. 연합 구역예배와 금요기도회

30일(금) 오전 10시 30분에 교육관에서
연합 구역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금요 밤 기도회는(30일)

4교구 전 구역 주관으로 진행합니다.

함께 하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4. 수 요 밤 예 배 시 간 안 내

수요 밤 예배시간을 밤 7에서 7시 30분으로 하였습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유미애 님, 품암동 한국 아파트

☺ 배재영 김용경 님, 품암동 부영 아파트

☺ 심영창 님, 품암동 중흥 아파트

지난 주 말씀 요약 (3 / 25)

제 목 : 벤세메스로 가는 암소
성경말씀 : 사무엘상 6 : 10 - 16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다곤 잡신을 섬기는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하여
이스라엘 지도자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다.
그러나 이런 부끄럽고 비참한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진행하심
가운데 이루어 졌으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징벌하고
바르게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다.
이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는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의 다곤 신과 백성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자신 스스로께서 회복하시고 보존하고 성취하셨다.

팔레스타인이 자기들의 신과 백성들이 재앙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임을 깨닫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① 명예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 명예를 메어 보지 않은 소는
명예를 메면 아프고 답답하여 몸부림치고 벗어나려고 한다.
그런데 조용히 명예를 메고 따르면 이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② 새끼를 둔 젖 나는 암소 :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성본능이
강하여, 어미에게서 젖 먹이는 새끼를 떼어놓으면 어미가
새끼를 찾아 발버둥치고 명예를 메려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암소가 암전히 명예를 멘다면 하나님의 역사이다.
③ 두 마리의 암소 : 전혀 명예를 메어보지 않았고 젖 먹이는
새끼를 둔 처음 만나는 암소 둘이기 때문에 마음이 맞을 수
없고 서로가 배척하며 명예를 벗어나려 몸부림치게 된다.
그런데 함께 명예를 메고 맞춰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이다.
④ 두 암소에게 맡긴다 : 소나 말은 사람이 앞뒤나 옆에서
끌어주고 인도해 주어야 길을 제대로 간다. 그런데 인도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소가 하나님의 언약궤 수레의 명예를 메고
길을 찾아 벤세메스로 바르게 간다면, 이 모든 일은 자연적
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신기한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셨음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다.

확인한 결과, 한 번도 명예를 메지 않은 젖먹이는 새끼를 둔
두 암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길을 찾아 하나님의 언약궤수레를 메고 이스라엘 벤세메스로
바르게 걸어감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 다곤이
거꾸러지고, 자기들이 재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언약궤를 모신 수레의 명예를 메고
이스라엘 벤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뜻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암소들을 사람으로 비유하셨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호세아4:16)
“사마리아 산에 사는 바산 암소들아 들으라. - 너희는 가장에게
술을 가져다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구나.”(아모스4:1)

벤세메스로 가는 암소를 통한 교훈은 ?
첫째, 언약궤 모시는데 육신의 고통이 있어도 감수(甘受)했다.
명예를 메고 수레를 끄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목이 아프고
답답하고 힘이 든다. 그래도 암소들은 단 마음으로 그 고통을
감당해서 언약궤를 끝까지 잘 모셨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받들고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 육신에
어떤 고통이 따르고 불이익이 따르다 하여도 달게 받으며
생이 다할 때까지 순종해 나가야 한다.

둘째, 마음의 고통을 감수하며 언약궤를 끝까지 잘 모셨다.
젖을 먹는 새끼가 있어 본능적으로 모성애가 발동을 하여
집에 가뉘 논 새끼에게 달려가고 싶고 애가타지만 그런 모든
마음의 고통을 감수하고 절제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끝까지 잘 모셨다.

셋째, 감사하여 눈물을 흘리며 감당을 했다.
언약궤를 모시고 벤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눈물을 흘리며
걸었다. 이는 몸과 마음의 고통에서라기보다, 소 같은 비천한
미물이 감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게 된 일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인하여 흘리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피조물도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노릇하는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롬8:19-23)

넷째, 몸 바쳐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여 감당을 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끝까지 잘 모신 다음에는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졌다. 번제물이란 하나님께 통째로
불살라 드리는 제물이니, 곧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다.

짐승, 미물인 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데 이렇게 자신을
온전히 바쳐 쓰임 받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 천국백성이 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이루어 드리기 위해,
몸의 수고와 마음에 고통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사실에 감사감격하며, 끝까지 몸 바쳐 충성해야 할 것이다.

2012 - 14

2012 년 4 월 1 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
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들이 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교육목사 김용상 : 010-7400-5810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협동장로 :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64 종교부지 1호

주 일 낮 예 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8 시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1. 44. (새 찬송가 1, 19.)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셔서
-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 저는 죄도 범치 않으시고 그 입에 궤사도 없으시며
-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에게 부탁하시며
-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 아 멘 - 베드로전서 2 장에서

찬 송 : 142 (새 찬송가 148)

기 도 : 홍의남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베드로전서 2 : 21- 25 신약 379쪽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136 (새 찬송가 147)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문정용 장로)

☆ 송 영 : 3 (새 찬송가 5)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4 월 안내]

남, 김정환 조상희 공옥열
여, 노인숙 정명숙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2시)

사 회 : 김철진 집사 (다음 채현숙 집사)

기 도 : 김공순 집사 (다음 박선옥 집사)

말씀증거 : 목 사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 요 저 녁 예 배 (저녁 7시 30분)

사 회 : 이성희 집사 (다음 공옥열 집사)

기 도 : 이춘자 집사 (다음 김영복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고린도후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 벽 기 도 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사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고린도후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김용상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고린도후서)

청 년 부 예 배 (주 일 오전 10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 요 밤 기 도 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2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 교 회 소 식 *****

1. 학습 세례 문답 예비공부

본 교회에 출석하여 6개월 이상 된 분은 학습문답 공부,
1년 이상 된 분은 세례문답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2살 미만 아기들의 유아세례를 받고자 하는 부모님은
유아세례 문답공부를 하게 됩니다.

4월 2일(월) 3일(화) 오전 10시 30분, 밤 7시 30분.

2. 부활주일 위한 준비

4월 2일에서 7일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 값을 지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고난 주간이며,

4월 8일 주일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 부활주일입니다.

3월 26일(월)부터 4월 8일(주)까지

특별새벽기도회로 모이며 경건한 생활로 주님을 기리고
한 끼 이상 금식하며 믿음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3. 고난 주간 금요예배와 금요기도회

주님께서 죽으신 수난일 6일(금) 오전11시 교육관에서
기념예배를 드리며, 금요 밤 기도회는 6교구 주관입니다
함께 하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4. 월례제직모임

오후 예배 후 3시 10분에, 이곳 본당에서
월례제직모임이 있습니다. 제직들은 참여 바랍니다.

5. 부활절 안내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세례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새벽예배는 전 교인이 참여하여 본당에서 드립니다.

오후예배 후 2부 순서는

교구별 찬양경연과, 마태복음을 읽은 암송과 퀴즈경연이
있으며,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유미애 님, 풍암동 한국 아파트

☺ 배재영 김응경 님, 풍암동 부영 아파트

☺ 심영창 님, 풍암동 중흥 아파트